



2021년 11월 9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1.9(화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11. 8(월)	담당부서	에너지기술과 수소경제정책과 재생에너지정책과 석탄광물산업과
담당과장	박태현 과장(044-203-5150) 이옥헌 과장(044-203-3950) 이재식 과장(044-203-5360) 양동우 팀장(044-203-5259)	담당자	이수정 사무관(044-203-5157) 김만식 사무관(044-203-3953) 이송이 사무관(044-203-5366) 신승일 사무관(044-203-5258)

**한-칠레 수소 업무협약(MOU) 체결 및 광물, 재생에너지 협력 강화**

- 박기영 2차관-칠레 에너지부 후안 카를로스 호베트 장관 면담 -

- 저탄소 수소 무역시장 및 한-칠레 수소 공급망 구축 협력 -

## &lt; 1 한-칠레 저탄소 수소 업무협약(이하 MOU) 체결식 &gt;

- '21.11.9(화)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) 박기영 2차관과 칠레 에너지부-광업부 후안 카를로스 호베트(Juan Carlos Jobet) 장관은
  - 서울 롯데호텔에서 '한-칠레 저탄소 수소협력 MOU' 체결식을 개최하고 양국간 수소협력 확대 의지를 선언했다.
  - 동 MOU는 금년 2월 주한칠레대사관을 통한 칠레 측의 수소협력 MOU 추진 제안에 따라 논의가 시작되었으며, 이후 칠레 측은 에너지부 장관 방한('21.11.8~10) 계기에 MOU 체결을 요청했다.

## &lt; MOU 체결식 개요 &gt;

- 일시/장소 : '21.11.9(화) 09:00~10:00 / 을지로 롯데호텔 버클리스 스위트
- 참석자 : (한국)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2차관 (MOU 서명은 문승욱 장관)  
(칠레) 에너지부 후안 카를로스 호베트(Juan Carlos Jobet) 장관  
\* 광업부 장관 겸임

□ 칠레는 '국가 녹색수소전략(20.11월)'을 통해 방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기반\*으로 세계적 청정연료 공급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하고 녹색수소 생산·활용 확대, 국제협력 등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.

\* 칠레 재생에너지 잠재량(GW) : 총 약 1,800GW(태양광 1,180, 태양열 509, 풍력 191, 수력 6)

○ 한국도 청정수소 중심의 전주기 수소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, 수소 로드맵(19.1월) 발표, 수소법 제정(20.2월), 수소경제위원회 출범(20.7월), '수소경제 선도국가 비전'(21.10월) 발표 등을 착실히 추진 중이다.

□ 양국은 동 MOU에 따라 수소 생산-저장-운송-활용 전주기 기술교류 및 양국의 수소경제 경험을 공유하며, 국제적인 산업·비즈니스 협력체 개발과 사업기회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.

○ 칠레의 재생에너지 자원과 한국의 수소 활용기술·보급 경험을 결합함으로써 양국간 경제적인 수소 공급망 구축 및 저탄소 수소 무역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특히, 박 차관은 한국이 추진 중인 '청정수소 공급망 이니셔티브\*'를 언급하며,

\* 국제 청정수소 공급망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소 수요국·공급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

- '21.11.1일 COP26 계기에 개최한 동 이니셔티브 추진설명회(영국, 클래스고)에 칠레도 참석하여 관심을 보인 바, 칠레도 적극 참여하여 이니셔티브 출범을 함께하자고 제안했다.

#### < 청정수소 공급망 활성화 이니셔티브 (안) >

- (개요) 안정적이고 신뢰할만한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복수국간 협의체로 청정 수소 인증, 원산지규정 및 이산화탄소 저장, 수소가격 공시, 실증연구·사업 등 논의
- (주요내용) ①청정수소 인증 ②원산지 규정 등 교역규칙 ③이산화탄소 포집·저장 ④수소가격 공시 ⑤실증 연구·사업
- (대상국) 수소생산 연구가 구체화된 국가를 중심으로 우선협의를  
\* 칠레, 아랍에미리트, 사우디, 오만, 카타르, 호주, 뉴질랜드, 말련, 인니, 노르웨이, 프랑스 등
- (운영) '22년 이니셔티브 출범을 목표 / 매년 1-2회 정례 회의 개최/ 5대 분야별 실무단 설치

## < ② 에너지·자원 협력 강화 면담 >

□ 양국은 광물, 재생에너지, 에너지 연구개발(R&D) 등 협력 강화 의견도 교환했다.

- 먼저, 광물자원 부국인 칠레\* 자원 산업에 한국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이차전지 및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리튬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이 구축되길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했다.

\* 세계 광물자원 매장량 중 칠레 비중(%) : 리튬 45.8, 동 23.0, 요오드 9.8, 몰리브덴 7.8

- 재생에너지 관련, 동서발전·한수원 등 우리 기업들이 칠레 정부 지원으로 현지 태양광 산업에 활발히 진출중임을 언급하고,

향후 태양광 출력제어·계통지원 관련 사례공유 및 공동연구 확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.

- 또한 청정에너지 기술혁신이 2050 탄소중립과 경제 번영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을 기대하며,

청정에너지 연구개발(R&D) 촉진을 위한 미션이노베이션\* 등 플랫폼을 활용하여 양국간 공동 기술개발·실증 사업 발굴을 촉진하기로 했다.

### 【미션이노베이션(Mission Innovation, MI) 개요】

- 공공부문 청정에너지 R&D 확대 및 국가간 협력을 위해 '15년 파리협정과 함께 출범한 주요국 협의체, 연례적 MI 장관회의 6회 개최 및 기후변화총회 참여
  - 제6차 MI 장관회의(21.5.31-6.6, 칠레, 온라인) : 장관급 라운드테이블, 제2기 MI 출범식
- 회원국 : 한국, 칠레, 영국, 미국, 중국, 일본, 호주, 브라질, 캐나다, 덴마크, 프랑스, 독일, 인도, 이탈리아, 노르웨이, 사우디, 스웨덴, UAE, 네덜란드, 핀란드, EU, 오스트리아, 모로코

□ 박기영 2차관은 “금번 저탄소 수소분야 MOU 체결은 양국간 수소 협력이 공고해질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계기”라고 평가하며,

- “앞으로 다양한 방식의 수소협력을 통해 양국이 글로벌 청정수소 경제를 조기에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.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수소는 김만식 사무관(044-203-3953), 재생에너지는 이송이 사무관(044-203-5366), 광물은 신승일 사무관(044-203-5258), 에너지R&D 및 기타 전반사항은 이수정 사무관(044-203-515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